

[편집인의 글]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달여의 시간이 흘러 두 번째 'HIRA 정책동향' (정책동향)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책동향 창간호가 발행된 뒤 많은 분들의 애정 어린 조인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행횟수가 늘어날 때 마다 이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의 정책동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과 쟁점'의 이번 호 주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되었던 '임의비급여'입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과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의 글은 지난 10월 9일 개최된 '심평포럼'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두 필자가 재정리한 것입니다. 이 두개의 글에 더하여 심평포럼의 토론내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정정지 실장의 임의비급여 현황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 앞으로 이 난은 보다 많은 목소리를 담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HIRA 연구'는 'OECD의 환자안전 질 개선 활동'을 실었습니다. 환자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신상대가치와 현재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요양기관별 수가계약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해외동향'에는 '정책과 쟁점'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하여 영국과 일본의 신의료기술 도입과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HIRA 연구'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진 척추수술에 관한 연구, 환자안전에 위해 병원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자 하는 호주보건연구센터(ACHR)의 움직임과 지난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의제를 소개하였습니다.

'진료경향분석'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 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증가요인별 지출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대내외 주요 행사'에는 11월에 열리는 '한국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비롯하여 원내외의 주요 학회나 행사 소식을 실었습니다. 이 난은 우리원의 행사뿐만 아니라 원외의 행사도 다루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창간호에서 다짐한 바 있듯이, 저희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조인과 날카로운 비판에 힘입어 '정책동향'을 매호 더욱 알차고 풍성한 내용으로 채워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장

정형선